



즉시 배포용: 2019년 9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새로운 업스테이트 셀룰러 커버리지 태스크포스(UPSTATE CELLULAR COVERAGE TASK FORCE) 발표

업스테이트 뉴욕의 농촌 및 멀리 떨어진 지역의 셀룰러 서비스 격차 해결을 위해 제안안을 개발하는 워킹그룹

태스크포스(Task Force)는 오늘 첫 회의 가질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새로운 업스테이트 셀룰러 커버리지 태스크포스(Upstate Cellular Coverage Task Force)를 발표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업스테이트 뉴욕의 농촌 및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의 셀룰러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해결책과 정책을 개발할 것입니다. 주지사의 2019년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의 일환인 태스크포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가 지휘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안정적인 셀룰러 연결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업스테이트 지역은 너무 오랫동안 일상생활과 상업활동에 필수적인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고생해왔습니다. 오늘은 셀룰러 서비스 전문가, 선출직 대표, 환경 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발족하여 확실한 정책을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전진해나갑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셀룰러 서비스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태스크포스는 기존의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업스테이트 지역사회와 농촌 지역의 주민 및 사업체는 여전히 셀룰러 서비스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1세기 인프라 현대화를 추진하여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경제를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태스크포스는 업계 전문가, 지역사회 지도자, 정부 관계자, 환경 대표자, 기타 주요 이해당사자로 구성되며, 알바레즈 앤 마셜(Alvarez & Marsal)이 고문을 맡습니다. 태스크포스의 첫 회의는 오늘 열립니다.

업스테이트 셀룰러 네트워크 커버리지 부족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소통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마트 지자체 인프라 도입을 방해합니다. 커버리지 격차가 상당히 큰 애디론댁 공원 지역(Adirondack Park Region)과 기타 업스테이트 농촌 지역에서는 셀룰러 배치 문제가 주요한 지역의 우려였습니다. 태스크포스(Task Force)는 기존 정책, 잠재적 방해 요인, 가용 자원, 연방 지원 등 지원금 마련책을 검토하여 실행 가능한 제안안을 만들고 애디론댁과 캐츠킴 등 서비스가 잘 지원되지 않는 곳에 셀룰러 커버리지 개선을 도모할 것입니다.

업스테이트 셀룰러 커버리지 태스크포스(Upstate Cellular Coverage Task Force)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Barbara Rice, Andrew M. Cuomo** 주지사실 경제개발 차관보
- **Jeffrey Nordhaus**,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이노베이션 및 브로드밴드 부대표
- **Thomas Congdon**, 뉴욕주 공공서비스 커미션(New York State Public Service Commission) 부커미셔너
- **William Farber**, 해밀턴 카운티 슈퍼바이저 이사회(Board of Supervisors) 대표
- **Chris Fisher**, 뉴욕주 무선 연합(New York State Wireless Association) 전 대표 겸 고문
- **David Hopkins**, 스투벤 카운티 E911 디렉터
- **Jeff Senterman**, 캐츠킴 센터(Catskill Center) 상임이사
- **Satya Sharma** 박사, 뉴욕 주립 대학교 스톤브룩(SUNY Stony Brook) 무선 정보 기술 엑셀런스 센터(Center for Excellence in Wireless Information Technology, CeWIT) 상임이사
- **Michael Sprague**,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디렉터
- **Rick Weber**, 뉴욕주 애디론댁 공원청(New York State Adirondack Park Agency) 플래닝 부디렉터
- **Betty Little***, 뉴욕주 상원의원
- **Jen Metzger***, 뉴욕주 상원의원
- **Rachel May***, 뉴욕주 상원의원
- **Aileen M. Gunther***, 뉴욕주 하원의원
- **Billy Jones***, 뉴욕주 하원의원
- **Angelo Santabarbara**, 뉴욕주 하원의원

* 당연직위원

뉴욕주는 인프라 및 브로드밴드 사용도에 역사적 수준의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2015년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에 고속 인터넷 접속을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을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전면 시행 이후, 90 퍼센트 이상의 뉴욕 주민들이 와이어드 브로드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엠페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커미셔너 대행이자 대표,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전화가 끊어지거나 신호가 사라지는 절망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바일 접속이 상업과 소통에 필수적인 우리 뉴욕주의 농촌 지역에서 특히 문제입니다. 태스크포스에 임명된 엄청난 인재들은 모든 주민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필요할 수 있는 인프라 건설에 대한 환경적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의 **Barbara Rice** 차관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품질 셀룰러 서비스는 농촌이나 멀리 떨어진 지역은 물론 뉴욕에 사는 모든 뉴욕 주민이 친구나 가족과 소통하거나 사업을 유치하거나 숙제를 할 때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저는 업스테이트 셀룰러 커버리지 태스크포스(**Upstate Cellular Coverage Task Force**)에서 **Cuomo** 주지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뉴욕 주민을 위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기를 고대합니다."

엠페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혁신 및 브로드밴드 부대표인 **Jeffrey Nordhau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지난 5년간 진행해 온 중요한 사업을 기반으로, 셀룰러 커버리지의 유사한 격차를 해결하는 과정을 시작하여 업스테이트 뉴욕에 개선된 브로드밴드 커버리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브로드밴드와 같은 이러한 격차는 경제 개발, 관광산업, 공공 안전의 문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스크포스와 협력하여 가능성 있는 제안과 해결책을 검토하기를 고대합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Public Service)의 **Thomas Congdon** 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력하고 단단한 셀룰러 네트워크를 보장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 기회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모두가 의존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소통의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해밀턴 카운티 슈퍼바이저 이사회(Hamilton County Board of Supervisors)의 **William Farbe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의 일환으로 설치된 가정 광섬유의 수로 인해 다른 주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다음 단계는 뉴욕 주민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스테이트 셀룰러 태스크포스(**Upstate Cellular Task Force**)는 철저히 커버리지 수요를 평가하는 한편, 뉴욕주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개발할 것입니다."

뉴욕주 무선 연합(New York State Wireless Association, NYSWA)의 전 대표이자 주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 자문인 **Chris Fish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주 무선 연합(**New York State Wireless Association**)을 대표하여 **Cuomo** 주지사의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주정부 및 지자체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캐츠킨과 애디론덱 지역에서 공공 안전은 물론 무선 기술의 경제적 이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캐츠킨 센터(Catskill Center)의 Jeff Senterman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셀룰러 서비스는 캐츠킨에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민과 기업의 삶을 더욱 편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업스테이트 셀룰러 커버리지 태스크포스(Upstate Cellular Coverage Task Force)와 함께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요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Kristina M. Johnson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위대한 주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캠퍼스에서 살고 근무하는 수천 명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 학생 및 교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를 위해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의 활동으로 인해 생활과 배움의 필수 요소가 된 셀룰러 커버리지를 더욱 일정하게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네트워크 개선은 또한 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이러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Betty Littl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 컨트리를 포함한 뉴욕주의 어떤 지역도 20세기에 멈춰사는 사치를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구조 전화를 포함해 수많은 이유로 휴대전화에 의존합니다. 저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주지사께 찬사를 보내며,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절망을 주었던 서비스 격차를 해결할 계획을 만들고 논의에 참여하기를 고대합니다."

Jen Metzg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셀룰러 커버리지는 경제 및 공공 안전을 위한 필수재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표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거나 품질이 매우 열악합니다. 저는 동료 태스크포스 구성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캐츠킨과 미드 허드슨 지역의 서비스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모든 지역사회가 21세기 번영을 위해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기대합니다."

Rachel Ma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셀룰러 서비스는 제 지역구 농촌 지역의 기업, 학생, 응급 구조원, 주민에게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적절한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사회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뒤쳐질 수 있다는 커다란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업스테이트 셀룰러 서비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태스크포스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ileen Gunth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츠킨은 셀룰러 서비스 접속에 있어서 만성적인 서비스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입니다. 저의 지역구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지역의 셀룰러 서비스 부족과 일부 지역에만 커버리지가 제공되는 문제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제100 구역 전역으로 셀룰러 커버리지를 확대하게 되어 기쁩니다. 셀룰러 서비스는 오늘날 사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필수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이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Billy Jone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셀룰러 서비스는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일상의 필수품입니다. 노스 컨트리에는 너무 오랫동안 셀룰러 커버리지의 심각한 격차라는 불편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는 경제적으로 불리해졌습니다. 저는 업스테이트 셀룰러 커버리지 태스크포스(**Upstate Cellular Coverage Task Force**)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며, 이 장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고안해내고 싶습니다."

Angelo Santabarbara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길 찾기에서 가족의 안부를 묻는 것까지 일상의 모든 것을 우리의 휴대전화와 모바일 기기에 의존합니다. 너무 많은 뉴욕 주민, 특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셀룰러 커버리지를 누리지 못하고 '이제 들려요?'라고 물으며 서비스 구역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헌신적인 태스크포스를 출범하여 이 중요한 문제를 검토하고 장기적 해결책을 찾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일보 전진입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의 우리 지역에 산다는 것이 세계의 다른 부분과의 소통 단절이나 경제적 불리를 위미해서는 안 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